



조계사 장애인 포교신행단체 원심회는 8월 6~7일 남해 용문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청각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서로 도우며 발우공양을 체험하고 있다.

원심회 하계수련회 '행복한 여름'



용문사 주지 성전 스님(가운데)이 원심회원들을 위해 법문을 하면 염재면 회장(왼쪽)이 수화로 통역을 했다. 해봉 스님(오른쪽)은 회원들을 위해 다도법을 지도했다.

봉사자·수혜자 따로 없어 어울리니 행복

"장애는 성장의 동력이요 역경 이기는 힘"

때문에 쉬운 자비관 명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송합니다.'

염재면 회장의 수화통역에 맞춰 용문사에서 수련회의 첫 과정인 발우공양이 시작됐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해봉 스님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세상은 꼭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눈빛과 손동작으로 발우공양법을 설명했다.

"발우공양 지도한 이래로 이렇게 목 안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말을 거의 안 했는데도 너무 잘했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절집에서 찌국을 얻어 먹는다'는 옛말이 있는데, 딱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말인 것 같네요."

해봉 스님은 발우공양을 마치고부터는 필요한 말만 봉사자들에게 했다. 말없이 간단한 손짓과 눈빛으로 저녁예불, 스님과 함께 바닷가 걷기 명상, 다도, 새벽예불, 108배, 참선을 진행했다. 몇 가지 의식문을 수화로 하고, 목탁 대신 북을 사용할 뿐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6시간 이동에, 2시간 여의 포행, 새벽기도 등 일정이 벽장만도 한데 참가자들은 빠짐없이 참가했다.

성전 스님은 원심회원들은 격려했다. "몸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탐·진·치에 이끌려 자신의 몸을 찬다면 성한 몸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온전치 못한 몸이라도 오롯이 마음을 밝히는 것, 어떤 행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답니다. 몸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 불구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한 몸으로도 행복과 자비가 남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불제자이기를 발원하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애는 곧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유명한 성전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행복은 스님의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원심(圓心)으로 통했다.

말고 먼 남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여서 그 길은 멀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사람들과 수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고루 섞여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봉사자와 수혜자가 따로 있지 않았다. "같이 부처님께 귀의해 공부하고, 때로는 같이 어울려 노는 게 좋을 뿐"이라는 한 봉사자의 말처럼 모두가 격의 없이 한 마음이었다.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청각장애인이나 봉사자 중에는 이곳에서 휴가를 지내는 이들도 많았다.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곳에 온 이유를, 행복이 무엇이고 싶은 일 조차도 이들에게는 입 아픈 일이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말하지 않아도 통해요 마음으로 눈빛으로



아침포행길에 회원들이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웃음을 나누고 있다.

수화로 삼귀의·사홍서원 등의 의식을 진행하는 원심회 회원들.

가을의 문득 입추(立秋). 이글거리는 태양의 기세는 사그라질 줄을 모르고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도시의 열대야에 숙면을 포기한지도 오래다. 낮이면 습한 공기에 불쾌감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다. 여름이 어서 지나기만을 바라는 데 다음 달까지 이 무더위가 이어진다는 기상예보에 숨이 턱턱 막힌다.

8월 7일 조계사 일주문 앞. 노란색 조끼를 입은 이들이 버스에 오른다. 버스 앞 유리에는 '행복한 여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천연덕스럽게 걸려있다. 여름은 행복을 살아 먹는 계절인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뭐가 어찌하여 행복하다는 것인지.

버스는 만원이었다. 이 버스를 타고 40여 명이 경상남도 남해까지 내려간다. 휴! 이동시간만 무려 6시간. 버스에 오르자마자 사람들은 말없이 나눠주기만 한다. 과자, 음료수, 열린 생수, 사탕, 오징어, 팽튀기에 중간 중간씩 나눠주고 서비스된다.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화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행복한 여름의 주인공인 조계사 장애인 포교신행단체 원심회 회원과 가족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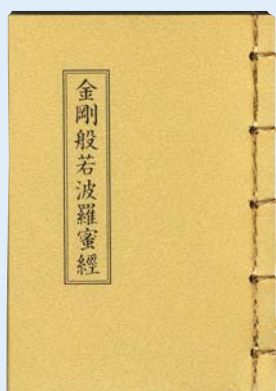
원심회는 8월 6~7일 경남 남해 용문사주지 성전 스님 여름수련회를 떠났다. 염재면 원심회 회장은 수화통역을 하고, 봉사자들은 이것저것 챙기고 나눠주기 바빴다. 행사 내내 그랬다.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었다. 청각 장애인들은 누구나 눈이 마주치면 미소로 인사를 하고 "어뵈"라고 말하거나 수화로 전했다. 주는 대로 받고, 갖는 대로 나누는 사이 남해에 도착했다.

용문사에 도착하기 전 한국 최초의 현수교(懸垂橋) 남해대교에 올랐다. 바다는 조용했다. 싱그러운 바닷바람이 코를 스치고 지나갔다. 임추를 맞은 하늘과 바다는 하나였다. 가까이 내다보이는 섬들은 웅기종기 모여앉아 모두를 반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끌어안고, 푸른 하늘과 바다와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달궂질 데로 달궂진 아스팔트 다리 위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사랑하는 이와 팔짱을 끼고, 들리지 않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보통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통제하기 힘든 것이 단체 행사인데, 행사는 조용히 어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수화로는 공양계승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순금명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x 5cm (중) 5 x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요품

복상불소영가장량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안을 마음속에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때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열복대 의료기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기기 환경인증, 선상실안출원 시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임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